

결성20년 노브레인 '중년핑크' 노련미

핑크 록 밴드 '노브레인'이 올해로 결성 20주년을 맞았다. 흥대 인디 신의 역사로 통한다. 1995년 4월5일 흥대 안 클럽 '드럭'이 한국인디의 태동지다. 미국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 '니버나'의 프런티어 커트 코베인(1967~1994)의 1주기 추모공연이 신화였다.

노브레인은 1996년 이 '드럭'을 기반으로 결성됐다. '발 달리지'의 '크라임넷'과 핑크계의 생명을 이뤘었다. 5년 만인 28일 발표한 '브레인리스(BRAINLESS)'는 제목에서부터 초심의 기운이 짙었다. 본래 제목은 '무뇌(無腦)'였다. 팀 이름 노브레인으로 자연스럽게 수렴됐다.

데뷔 당시 새빨간 머리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자랑한 보컬 이상우(40)는 "초심으로 생각해주는 분들이 많다"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 앨범을 좋아하는 팬들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 핑크'의 포문을 연 노브레인은 1997년 '드럭'에서 활동한 밴드들의 유니티 앨범 '이유네이션 2'집으로 첫 음반을 냈다. 2000년 마침내 1집 '청년폭도맹진'으로 활화산 같은 핑크의 에너지를 불태웠다.

어느덧 20년차 밴드가 된 노브레인은 나이에 걸맞은 '중년 핑크'를 선보인다. 이상우, 드럼 황현성(38), 기타 정민준(36), 베이스 정우용(34) 등 네 멤버의 평균 나이는 만 37세. 자기고백과 인생의 회로에 락 건강을 비판으로 뒤받침된 핑크는 젊은 날의 핑크의 날카로운 대신 노련함을 장착했다. 황현성은 "우리가 대한민국 중년 남자로서 5년 동안 절실하게 느낀 것

"오늘 밤 하나투어 브이홀에서 쇼케이스 열어"



핑크 록 밴드 '노브레인' 정민준, 이상우, 황현성, 정우용(왼쪽부터)은 올해로 결성 20주년을 맞아 나이에 걸맞은 '중년 핑크'를 선보인다.

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한바탕 달리는 핑크 사운드로 인트로에 제 격인 첫 트랙 '브레인리스'를 시작으로 언론을 비판하는 '빅 포니 쇼(Big Pony Show)', 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킬 유어셀프(Kill Yourself)'는 으르렁대는 사운드를 과시한다.

청춘과 록을 노래하는 쉽고 편한 사운드의 타이틀곡 '내 가족잡바'를 거치면 더 이상 팜과 노련미로 되지 않는 '금수저

시대'에 대한 비판을 담은 묵직한 '해니웨이(Aryway)'로 장르의 롤러코스터를 선사한다. 노브레인 6집 '하이 텐션'에 수록된 동명곡의 2016 버전으로 기타 리프의 질주감 대신 피쳐링한 래퍼 제이봉의 기운으로 리듬감이 강조된 '엄마 난 이 세상이 무서워'도 갯가를 감돈다. 풀어만 가는 일 자리와 늘어만 가는 세상이 만들어낸 현 시대의 각박함을 표현한 '하루살이',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어른들에게 반기를

드는 '무슨 벼슬이냐'는 핑크의 기운이 들끓는다. 청춘을 노래하며 열정을 뽐내던 노브레인이 이제는 어느덧 중년이 된 자기 자신들을 노래한 블루스 '위스키 블루스'는 위로의 파날레다.

총 11곡은 장르, 메시지, 전개가 모두 다르지만 통일감이 든다. 정민준은 "긴 싱글처럼 들렸으면 했다"고 말했다. '킬 유어셀프', '해니웨이', '엄마 난 이 세상이 무서워', '무슨 벼슬이냐' 등은 반사회적 가사, 욕설, 저속한 표현 등의 이유로 지상파 3사 불가판정을 받기도 했다.

노브레인은 모두를 절망에 빠뜨린 IMF의 한가운데서 우뚝 솟아났다. 그런데 멤버들 모두 지금이 더 합쳐야 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노브레인의 원년 멤버는 이상우와 황현성. 10년 전 정민준과 정우용이 합류. 지금은 팔을 갖춘 이후 변화 없이 탄탄한 팀워크를 자랑해왔다.

노브레인은 메인스트림 속에서도 인디 정신을 잃지 않는 균형 감각을 지니고 있다. 지난 28일 KBS 2TV '불후의 명곡 - 불특정권'에서 최성수의 '풀잎사람'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핑크록 감각이 가득한 이 곡은 다른 팀들과 색다른 기운을 전하며 청중을 사로잡았다. 열악한 방송 환경에서도 그들의 사운드는 명쾌하게 들렸다.

방송도 흥대 클럽 대하듯 펼쳤다. 노브레인은 흥대 클럽대인인 오늘 오후 10시 하나투어 브이홀에서 쇼케이스를 열었다. 연말에는 지난 20년간을 총집대성한 생일 파티도 준비하고 있다.

정민준은 "우리가 대한민국 중년 남자로서 5년 동안 절실하게 느낀 것"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한바탕 달리는 핑크 사운드로 인트로에 제 격인 첫 트랙 '브레인리스'를 시작으로 언론을 비판하는 '빅 포니 쇼(Big Pony Show)', 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킬 유어셀프(Kill Yourself)'는 으르렁대는 사운드를 과시한다. 청춘과 록을 노래하는 쉽고 편한 사운드의 타이틀곡 '내 가족잡바'를 거치면 더 이상 팜과 노련미로 되지 않는 '금수저



KPGA 챌린지투어 1회 대회 양현웅 생애 첫 우승

2016년 KPGA 챌린지투어(총상금 8천만원, 우승상금 1천6백만원) 첫 번째 대회에서 군산 출신의 양현웅(26,군산골프 아카데미)이 감격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군산컨트리클럽(파72, 7,399야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양현웅은 첫째 날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로 박현빈(29,국제육부대), 양승진(26), 박정환(24) 등 선두 그룹에 3타 뒤진 공동 9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양현웅은 3개의 보기를 범했지만 7개의 버디를 슈팅하며 4타를 더 줄여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를 기록, 염서현(25), 박연우(25) 등 2위 그룹을 1타 차로 제치고 생애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양현웅은 "아마추어 시절에도 우승 경험이 없어 많이 얼떨떨했는데 지인 분들의 전화가 쇄도하자 실감이 갔다"고 웃으며 말한 뒤 "경기 후반 퍼트감이 좋아 그린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플레이한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체육회, 사무처 인사 단행

전북체육회와 생활체육이 통합된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통합이후 첫 사무처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전북체육회는 지난 27일 열린 1차 이사회에서 2차 1실 2부 7과 8팀으로 사무처 조직을 구성하기로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지원육성처 사무처장은 (구)전북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이었던 류창욱을 임명하고 스포츠진흥처 사무처장에는 (구)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하던 최형원씨를 임명했다. 당연직 인사인 양 처장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지원육성부장은 박종섭 서기관이, 스포츠진흥부장에는 김흥기 서기관이 5월 1일자로 발령될 예정이다. 한편, 중요 요직 중 하나인 경영기획실장은 추후 절차를 거쳐 임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민근 기자

박병호 시즌 5호 홈런 '폭발'

3타수 1안타 2타점 기록 시즌 타율 0.241로 끌어올려

미국프로야구(MLB)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시즌 5호 홈런을 때렸다.

박병호는 28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의 타깃 필드에서 열린 2016 MLB 정규시즌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홈런 1개를 포함해 3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지난 20일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 이후 8일, 5경기 만에 터진 시즌 5호 홈런이다. 비거리 135m다.

전날 2루타 2개로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친 박병호는 이를 연속으로 장타를 때리며 타격감을 이어갔다.

맞으면 정타다. 박병호는 올 시즌 때린 14안타 중 9개를 장타로 연결했다. 홈런 5개, 2루타 4개다.

시즌 타율은 0.236에서 0.241(58타수 14안타)로 올랐다. 또 타점 2개를 보며 7타점을 기록 중이다. 박병호가 한 경기에서 2타점 이상을 올린 건 처음이다.

박병호는 1-0으로 앞선 1회말 1사 2, 3루에서 우익수 희생플라이를 쳐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4회 선두타자로 나와 평범한 3루수 땅볼로 물러난 박병호는 6회 추격에 박치를 가하는 홈런포를 터뜨렸다.

팀이 4-6으로 뒤진 6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선발투수 조시 톨린의 초구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구질은 88마일(약 137km)짜리 커터였다.

그러나 5-6으로 뒤진 7회 2사 만루 기회에선 헛스윙삼진으로 물러났다. 2볼 2스트라이크에서 95마일(약 153km)짜리 빠른 공



에 방망이가 휘둘렀다.

미네소타는 5-6으로 패해 연습 행진을 2경기에서 멈췄다.

/김민근 기자

KBS 리우올림픽 중계 메인 MC

도경완·이지연 아나운서 발탁

KBS가 '2016 리우 올림픽' 방송 메인 MC로 도경완(34)·이지연(30) 아나운서를 발탁했다. KBS 스포츠국은 최근 공개 오디션을 통해 두 아나운서를 선정했다. 젊고 밝은 이미지와 생생한 현장 전달이라는 면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해설진으로 나선다. 이은경(양궁), 한명우(태권도), 여홍철(체조), 김택수(탁구), 하태관(배드민턴) 등이 출격하며, 이번 대회를 위해 김윤희(리듬체조), 오성욱(핸드볼), 손태진(태권도) 등이 새롭게 영입됐다.

KBS 관계자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골프의 경우 초특급 게스트를 준비 중"이라며 "축구 중계는 이영표 해설위원이 투입돼 2014 브라질 월드컵 중계 시청률 1위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했다.

올림픽 기간 KBS는 1·2TV를 총동원 하루 평균 13시간의 생방송 등 매일 19시간 이상 올림픽 소식을 전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